

KSC News **성령 은사적 쇄신 소식**
Catholic Charismatic Renewal

가톨릭 성령 은사적 쇄신 미주 한인 봉사 위원회 Korean Service Committee of the CCR in the Americas



예수 성탄을 축하하며, 새해 축복을 빕니다.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평화 (누가 2.14)

인류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새 생명을 주시고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 오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축하하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희망찬 새해를 맞으시도록 기원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지난 한해 KSC 를 후원해 주신 성령 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성령 가족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들, 저마다 불씨 되어 미주 한인 사회에 성령의 불꽃을 활활 피어 오르게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4 쇄신 세미나 일정

1/7-9	KSC; New LSS (2000판) 봉사자 교육 서부 세미나; 사무국 이 줄리아 (253-223-8775)
1/15-19	Committee of Five: National Leaders' Gathering; KSC HQ (952-942-6288)
1/27-29	KSC; LSS 2000 지침서 봉사자 교육 (동부); 안희숙 회장 (704-839-6445)
2/1-5	KSC; 4차 과달루페 성지 순례; KSC 사무국 이은경 (253-223-8775)
2/16-20	신시내티 (OH) 공동체; 마음을 듣는 여정; 김정자 회장 (513-741-0010)
3/3-6	오마하 (NE) 공동체; LSS 세미나; 최요셉 부제 (402-681-9985)

미주 한인 천주교 성령가족을 위한 격 월간지
130 67th Ave Ct E, Fife, WA 98424
Tel.Fax. (253)663-4407
news@kscusa.org http://kscusa.org



회장 Corner
이 창재 부제

복음화를 위하여 헌신하고 계신
쇄신가족 여러분에게 예수 성탄과
새해의 축복을 빕니다.

KSC 과달루페 순례단은 지난
11월 4일 과달루페 대성당에서 과
달루페 성모님의 영정(원본)을 모시
고 KSC 창립 12주년 기념 미사를
봉헌하고 KSC 은인들을 위하여 기
도했습니다.

새해에는 지난해에 실현하지 못
한 '미주 한인 대학생 선교대회'를
개최하여 우리의 소망인 대학 선교 (Campus Ministry)
에 착수하게 되겠습니다. 역사적인 이 사역에 적극 동참
하시기를 바랍니다.

NSC가 발간한 2000년 LSS 새 지침서에 따른 세미
나가 여러 공동체에서 시행되어 본당 사목자와 신자들
의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계속 새 지침
서에 따른 '성령 안의 삶 세미나'를 교의적, 사목적 차
원에서 공동체 모든 신자들에게 광범위하게 시행함으로
그동안 '성령 세미나'를 통하여 제기된 통칭 '성령쇄신'
에 대한 혼란스런 인식을 점차 걷어 내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성령 안의 삶 세미나 새 지침서'을 통하여
'은사적 신앙쇄신'의 진수를 제시하고 제2차 바티칸 공
의회에 따른 신앙 쇄신의 방도가 '은사의 쇄신'
이 아니라 바로 '은사적 신앙 쇄신'이며 '성령 안의 삶
세미나'가 곧 그 '은사적 신앙 쇄신'의 도구라는 사실을
알려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세미나에서 가르침 봉사를 해온 기존 봉사자
라도 새 지침서의 정신으로 세미나의 개념에 새롭게 적
응해야만 일선 공동체에서 '은사적 신앙쇄신'을 위하여
적절하게 봉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봉사자들이 새로운 도전과 요청에 낙오
없이 능동적으로 응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올해 파티마 성지 순례

KSC는 지난 2004년 안전상 이유로 유럽 순례 일정
을 바꾸어 한국 순교지를 순례하였습니다. 금년에는
8월에 스페인과 포르투갈 (파티마)을 순방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다음 소식지(3월
호)에 발표합니다.

Sam Jacobs 주교, 복음화 위원회 의장 선임

미 주교회의 성령은사적 쇄신 소위원회 의장인 Sam
Jacobs 주교님이 미 주교회의 복음 선교 위원회 차기
의장에 선임 되었다. 내년 11월에 3년 임기의 의장에
취임한다. (NSC)

봉사자 동부 세미나 2005년에

2004년 12월 1-4일에 예정되었던 LSS 2000 지침서
봉사자 교육(동부) 세미나가 2005년으로 연기되었다.

감사합니다.

12월 10일 현재 후원금

이 마리아 (TN)	\$100.00
최 데레사 (MD)	\$100.00
과달루페 순례 계정(+)	\$150.00
이 인석 (MN)	\$100.00
현 정인 (WD)	\$100.00
윤 종훈 (NE)	\$100.00
이 원정 (NY)	\$100.00
나 요한 (MD)	\$100.00
김 분다 (MN)	\$100.00
천 진희 (한국)	\$100.00
양 귀례 (Canada)	C\$100.00
김 숙희 (Canada)	C\$200.00
권 스티브 (CA)	\$100.00
SandyGross (NY)	\$100.00
디트로이트 한인 천주교회	\$100.00
김 영남 (MN)	\$500.00

2004년도 세금공제를 위한 KSC 후원금 영수증을 1월
중에 발송하겠습니다, 착오가 있으면 연락 바랍니다.
(KSC 사무국장: 253-223-8775)

작은 나눔 큰 기쁨

수 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험한 오솔길을 신작로로 만들듯이,
실낱같은 시냇물이 모여 힘찬 강물이 되듯이,
작은 나눔이 큰 기쁨을 이룹니다.

성령 가족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이 모여
미주 한인 사회에 성령의 불을 놓아
하느님 나라 건설의 주춧돌이 됩시다.

KSC와 더불어 미주 한인 사회의 복음화를 위한 은사적 쇄신 운
동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KSC는 과달루페 순례를 계속합니까?

이창재 부제 (KSC 회장)



왜, KSC는 매년 2번 과달루페 성모 발현지 순례단을 조직하여 멕시코 시티, 과달루페 대성당을 순례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과달루페 성모님은 아메리카(남북 미주)의 주보이십니다. 과달루페 성모님은 우리 교회가 공식으로 인정한 2000년 교회 사상 최초의 성모발현입니다.

성모님은 1531년 12월 9일(두번), 10일, 12일에 멕시코 시내에 내려다 보이는 산 위에서 원주민 요한 디에고에게 발현하셨습니다. 원주민 처녀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성모님께서는 당신이 하느님의 어머니요, 평생 동정녀라 하시고, 이를 확인하는 표징을 주셨습니다. 표징의 하나로 주신 성모님의 영정이 근 500년이 지난 오늘에도 과달루페 대성당에서 매년 새롭게 우리를 반기고 있습니다. 이 영정이야 말로 하느님의 표징이며, 과달루페의 메시지입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성모님의 그림과 조각이 많이 있으나, 하느님의 작품은 오직 과달루페의 영정 뿐입니다.

둘째로, 과달루페는 원주민의 말로는 ‘돌뱀을 쳐부수다’ 라는 뜻인데, 원주민들이 날개 돋친 돌뱀을 신으로 섬기면서 매년 수 많은 어린이들을 제물로 바치고 있는 곳에서 성모님이 발현하신 후 7년 동안에 800만의 원주민을 모두 개종시킴으로써 멕시코의 원주민들을 날개 돋친 돌뱀(사탄)의 지배에서 구원하셨고, 성모님이 원주민 처녀의 모습으로 나타나심으로써 스페인의 지배하에서 신음하던 이들 원주민의 어머니(수호자)가 되셨습니다.

2000 교회사에서 가장 극적인 복음선교의 사례가 바로 오순절 성령 충만한 사도들의 강론을 듣고 하루에 3000명이 그리스도께 회귀하고 세례를 받은 일입니다.

만일 사도들이 하루 3000명씩 365일, 그리고 7년동안 매일 세례를 주었다 가정한다 해도 7백 66만 5천명으로서 8백만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니, 과달루페의 성모님은 과연 당신의 이마에 표상하시는 대로 성령님과 함께 사탄을 이기고 복음을 선포하신 복음 선교의 사령이십니다. 우리는 과달루페 대성당에서 500년간 지극한 사랑으로 당신의 자녀들을 내려다 보고 계시는 어머니의 영정을 올려다 보면서, 이분이 바로 ‘세계 복음선교의 모후’ 라는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세째로,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이 곳에 다섯번이나 방문하시고 과달루페 성모님을 남북 아메리카 대륙의 주보로 추존하시고, 아메리카 대륙의 복음화를 위하여 남북 아메리카 대륙을 과달루페 성모님에게 봉헌하셨습니다. 과티마의 성모님께서 러시아의 회개를 위하여 러시아의 봉헌을 요청하신 바를 상기하며, 오늘날 3000년기를 시작하는 이때에 우리는 세계를 이끌어 가게 될 미국의 막중한 역할과 함께 남북 아메리카의 장래를 위하여 교황님께서 과달루페의 성모님에게 간구하시는 깊은 뜻을 가늠합니다. 과연 우리는 오늘날 세계의 장래와 미국의 지도 역량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는데, 이미 과달루페 성모님께서 이미 500년전에 세계의 운명에 대하여 하느님의 계획을 가지고 오셨음이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째로, 미주 (남북 아메리카) 교회의 전례력에는 12월 12일이 과달루페 모후의 축일 (Feast of Our Lady of Guadalupe) 로 되어 있습니다. 과달루페의 성모님은 미주의 주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전 미주 교회와 신자들이 합당하게 지내야 할 축일이며, 재미 한인 공동체도 의당 그리해야 마땅합니다. 비록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한글판 매일 미사 (독서)는 한국 교회에서 발간한 원문을 그대로 복사한 것이기 때문에 ‘과달루페 모후의 축일’이 나와 있지 않으나, 우리는 장차 ‘과달루페 모후 축일 (12월 12일)’이 ‘성모 무염시태 축일 (12월 8일)’과 함께 ‘세계 복음선교의 모후 축일’로 보편 교회 공동 전례력에 올라 오리라는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선 과달루페 성모님을 세상에 알리고, 과달루페 순례를 통하여 우리의 신원을 깨우쳐 복음선교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자신을 연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KSC는 순례의 정보와 Know-how 를 개방하여 각 공동체의 순례를 도와 주는 한편 KSC 교유의 은사적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KSC 순례단을 조직, 봉사하게 될 것입니다.

KSC 4차 과달루페 순례: 2005년 2월 1일, 5차: 2005년 11월. 순례 일정 문의: KSC 사무국장 (253) 223-8775

각 지역 봉사회, 기도회 관계자 여러분들은 각종 세미나 및 기타 행사를 <http://kscusa.org> 의 알림판 게시판을 통해 공지하시기 바랍니다.

KSC 4차 과달루페 순례 여행 회원 모집

아래와 같이 'KSC 4차 과달루페 성모 발현지 순례 여행' 회원을 모집합니다.

- 일정:** 2005년 2월 1일(화) - 5일(토) (4박 5일)
집합 장소: Mexico City 국제공항 도착시간: 16:30 (4:30pm) 까지 도착.
 2월 5일(토) 14:00 (2:00pm) 이후 Mexico City 국제 공항 출발
회비: in land (숙식과 교통) \$400 (Check : Payable to KSC)
비행기표: 항공료는 별도입니다. 각자 구입하기 바랍니다. (사무국에 문의)
신청서 접수: KSC 사무국-130 67th Ave. Ct., Fife, WA 98424
 이은경 Julia Lee, 253-223-8775 Fax: 253-663-4407
마감: 2005년 1월 15일 (선착순 40명)

KSC 4차 과달루페 순례 여행 참가 신청서

이름(한글):	영세명(한글):	
Name(여권영문):	영세명(영문):	
Phones:(R) (B) (C)	Sex: M() F()	
Address:		
E-mail address:	Room-mate Name:	
여권국적(Nationality):	출발공항(Departure Airport):	
여권번호(Passport No):	항공사, 도착시간(Arrive Time):	
소속 공동체:	회비 납부:\$400.00	
<p>나는 Guadalupe 순례에 참석하여 모든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고 수칙을 준수하기로 약속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 날짜: 2005년 월 일</p> <p>서명 Signature : _____</p> <p>신청자에게는 일정표와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p>		
Official Memo:		